

제4실 법구 | 전시 해설

N-242 사리탑

먹으로 쓴 글씨에 따르면 호엔 4년(1138)에 수리된 것으로 밝혀졌으며, 제작 시기는 11세기 말~12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

N-71 목화 경전함

바탕 표면과 내부에 향목으로 된 목화(나무나 상아, 대나무 조각을 목재에 박아넣어 무늬를 표현한 것)를 붙인 상자입니다. 전체 8권으로 된 『법화경』(N-12)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.

N-300 칠상자

원래는 함의 본체 부분으로 지금은 뚜껑이 없어졌습니다. 칠 껍질을 감으면서 상자를 짜고 소방색으로 붉게물들여 옷을 칠했습니다. 이 상자 안에는 <가사>(N-35)가 담겨 있었습니다.

N-279 색발

색(壺)이라는 기법으로 제작된 그릇입니다. 이 기법은 틀에 형질을 눌러서 대고 옷으로 여러 겹을 붙여서 만드는 방식입니다. 일본에서는 나라시대에 불상을 제작할 때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건칠이라고 합니다.

N-278 나무 발

목제 바탕을 녹로로 성형하고 천을 붙인 다음 매우 두껍게 밀바탕을 제작하고, 옷을 발라 완성하였습니다. 달마대사가 사용하던 물품이라는 전승이 있습니다.

N-284 여의

여의는 승려가 설법을 할 때 손에 들고 위엄을 갖추는 의식용 도구입니다. 나라시대의 여의는 대체로 머리 부분이 작지만, 시대가 지남에 따라 구름 모양으로 변화합니다.

N-241-1 백만탑

녹로를 돌려 만든 3층짜리 목조 소형 탑입니다. 764년에 일어난 후지와라노 나카마로의 난 이후, 쇼토쿠 천황(재위 764~770)의 발원으로 멸죄(죄악을 소멸시킴)와 진호국가(국가를 안정시키고 지켜냄)를 위해 다량으로 제작되었습니다.